



8월 2일



사울 왕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사울 왕은 신하들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용감한 다윗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이 미웠어요.

“다들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잖아. 다윗을 용서할 수
없다.”

어느 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 왕이
날카로운 창을 다윗에게 획! 던졌어요. 다윗은 그 창을 살짝
피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 우리 아버지를 피해 빨리 도망가!”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을
도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답니다.

생각하는 아이

남우는 사실, 아직도 게임기가 갖고 싶었어요.
진수는 게임기가 있거든요. 어느 날, 진수가
시무룩하게 나타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우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내 눈이 나빠졌다고 게임기는 이제
가끔씩 하래.”

“속상하겠다, 진수야.”



“어쩔 수 없지 뭐, 눈이 많이 나빠졌다는데……

우리, 친구들과하고 오랜만에 달리기 하자.”

남우와 진수는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면서 놀았어요.

남우는 자전거를 매일 타서 다리가 튼튼해졌나 봐요.

친구들보다 빨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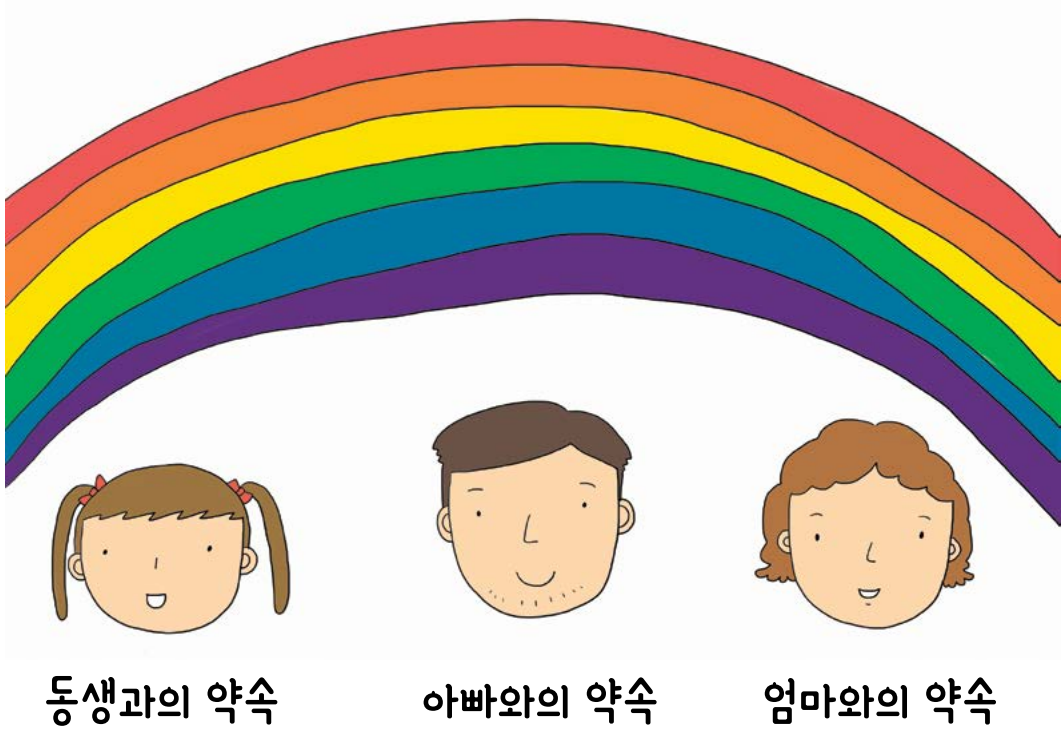
남우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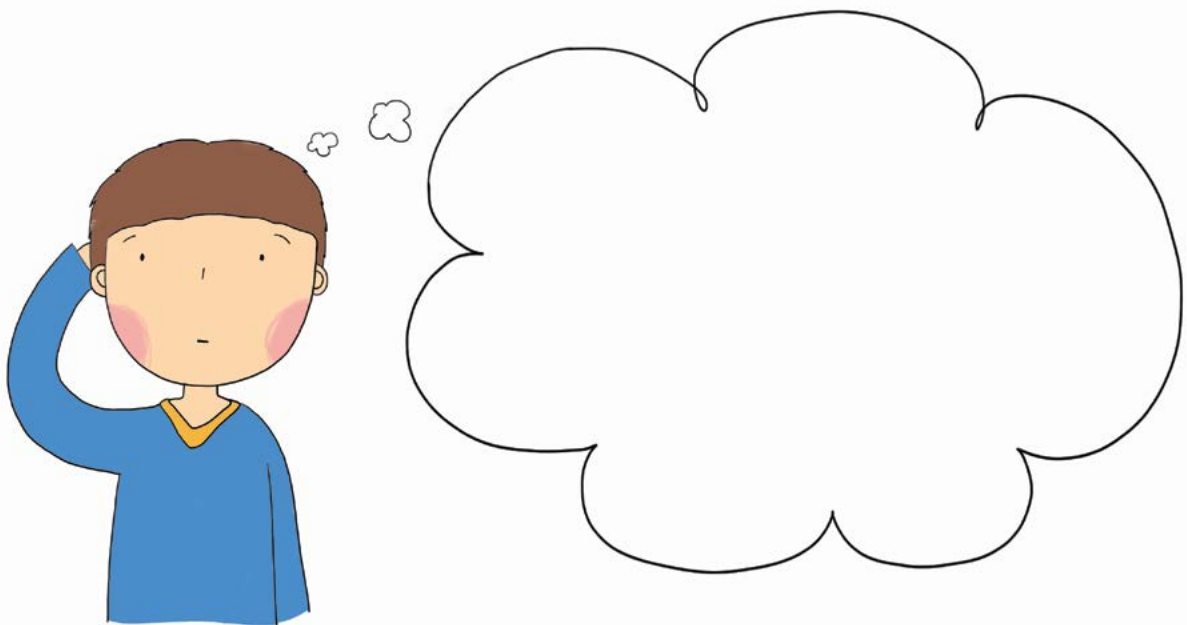


생각하는 아이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예요. 어떤 약속이 제일 중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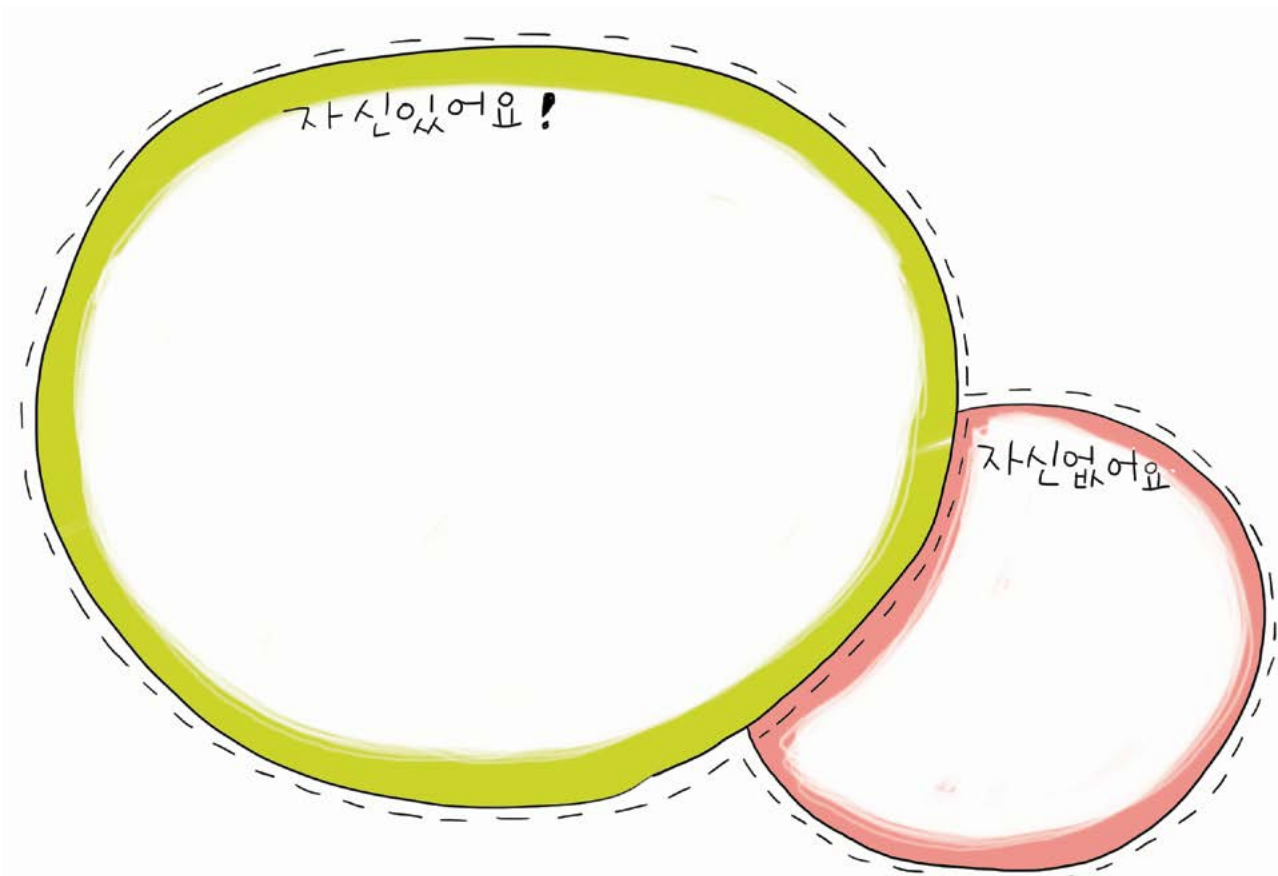
큰 약속도 작은 약속도 모두 중요해요. 작은 약속이라고 잊어버린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약속을 하기 전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한 약속 중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무엇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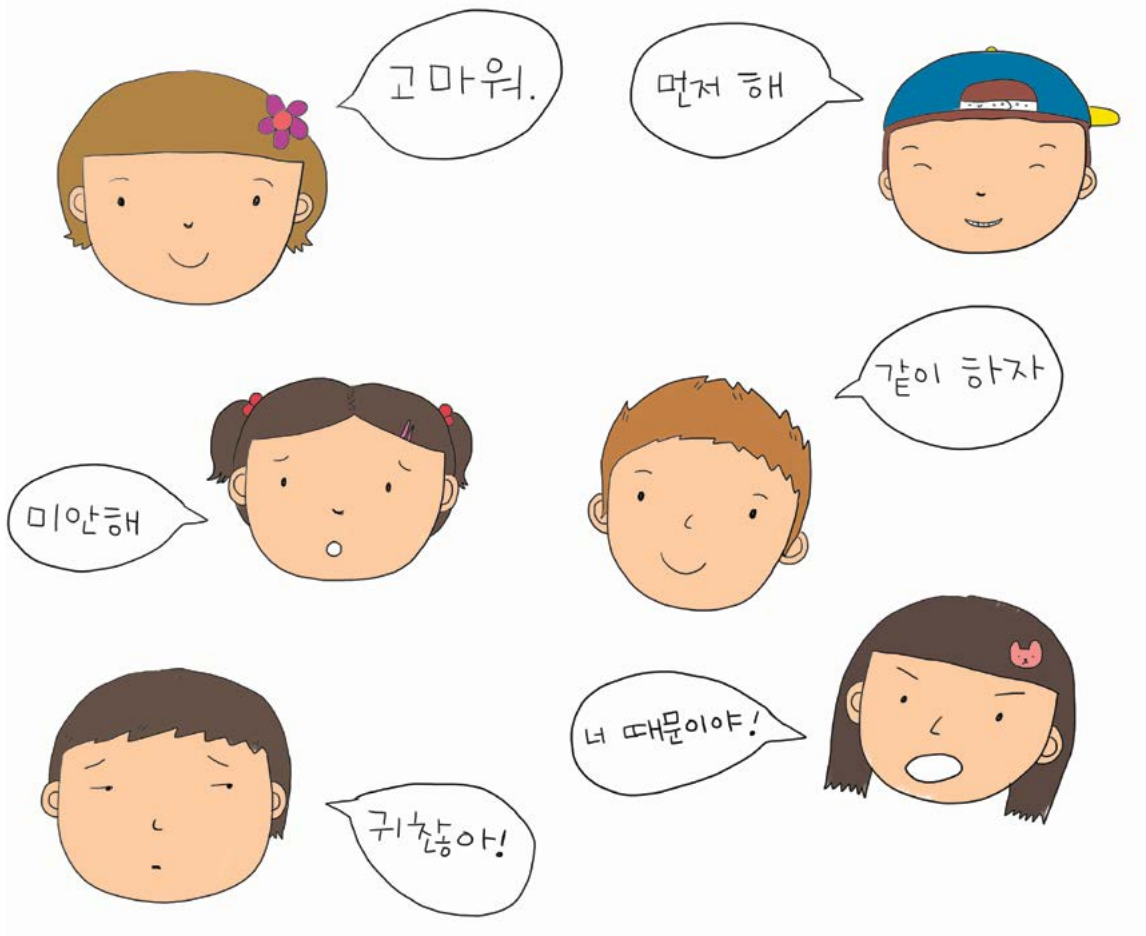




나와 제일 친한 친구 민지예요.



민지와 친구들의 대화 중에서 친절한 말들을 모두 찾아보세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1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